

개화기 서구인의 시조번역과 시가(詩歌)인식

-게일과 헐버트를 중심으로*

전영주**

|| 차례 ||

1. 서론
2. 직역과 의역의 '사이': 게일의 'Song'으로서의 시조인식
3. 문화인식과 시론의 탄생: 헐버트의 'poetry'로서의 시조인식
4. 결론

[국문초록]

19세기말 개항과 함께 조선에 들어온 서양선교사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자를 차용하여 시조 담당층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 시기의 영역시(英譯詩)는 한국시가(詩歌)에 대한 일반적인 시 인식을 전환시킨다. 최초의 영문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에는 다수의 시조가 영역되어 실리며, 그 가운데 게일과 헐버트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게일의 경우는 한국문학에 대해 점차 애정을 가지면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게일의 번역은 영시에 준한 것이었지만 차츰 시조의 특징이 반영되어 영시와는 그 기준법이 달라진다. 게일의 초기번역은 시조의 3행시를 구분하였지만 6행으로 번역되었고 'song'으로서 인식되었다. 헐버트의 경우는 단편적인 시조번역이 아니라 한국시의 대표성을 띠면서 이해되었기에 시론과 함께 소개되었다. 헐버트는 한국문화의 한 양상으로 혹은 문화인식을 토대로 한국 시가를 인식했던 것이다. 헐버트의 시조는 거의 의역되어 적극적으로 번역된다. 이처럼 1895년 서양선교사에 의해 처음 번역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포섭되는 첫 단초가 바로 시조번역이었다는 점은 의외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시조번역은 서구인의 시선에 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hanawa88@hanmail.net

해 여전히 일정부분은 오역(誤譯)되어 영역(英譯)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제어 : 개화기, 시조번역, 시가인식, 시론, 게일, 헐버트, 코리아리포지터리.

1. 서론

개항과 함께 문화가 개방된 19세기말은 서구인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기였다. 개화기에 조선에 들어와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서구인에게 는 무엇보다도 조선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우선되었다. 적극적으로 언어를 습득한 서양선교사에 의해 번역되고 번안된 한국문학은 서구인에게 주로 향유되었으나 조선에도 새로운 근대인식이 싹튼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1세대가 19세기말 서양선교사들이었던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개항 이후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한국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면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료중심의 번역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게일과 헐버트는 그 가운데에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시기 번역문학은 『천로역정』(1894)¹⁾처럼 단행본으로 한역(韓譯)된 경우도 있었으나 영역(英譯)은 주로 영문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올링거(Franklin Ohlinger)²⁾가 펴낸 최초의 영문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1892-1898)³⁾는 매월(每月) 조선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를 영역(英譯)하여 게재했다. 그러나 창간된 지 1년 만에 폐간을 맞게 되었고, 이

1) 현재까지 최초의 한글 번역소설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1894)으로 알려져 있는데, 번역자는 역시 게일이다.

2) 감리교 선교사였던 올링거는 배재학당 내에 삼문출판사를 설립하여 한글, 한자, 영어 인쇄물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The Korean repository』는 1883년과 1894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 약 6년간 삼문출판사에서 모두 발행되었다.

3) 『The Korean repository』는 『한국회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 잡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번역을 지양하고 『The Korean repository』(코리아리포지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후에 헐버트(H.B. Hulbert)가 복간하면서 시조번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895년 헐버트에 의해 복간된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되기 시작한 시조는 주로 게일에 의해 번역되었다. 게일은 총 18편의 시조를 『The Korean repository』에 발표하였다. 반면에 헐버트는 시조번역 외에 한국시의 시론에 주목했다. 헐버트는 시조를 통해 한국시의 특징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 번역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헐버트의 시조번역은 고시조 3행이 주로 8행으로 번역된다.

요컨대 이 시기의 영역 시조는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서구인의 시선에서 포착된 조선의 문화였고 생활로 인식된 것이었다. 특히 시조를 ‘Korean poetry’로 번역한 것은 시조에 ‘근대시’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서구인이 시조와 영시(英詩)의 차이를 목도하면서 시조의 낯섦을 일정부분 제거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배경 내로 끌어와 한국시를 탈바꿈(변형)시키려 한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들에게 시조는 근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시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외국인이 번역자를 자칭하여 시조 담당층이 된 과정은 그들의(서양) 입장에서 그들의(서양) 언어가 사용된 것이었기에 한국문학은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개항이후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게일(J.S.Gale)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 입국하여 40여 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게일의 시조번역의 형식도 차츰 달라진다. 총3차에 걸쳐 꾸준히 시도되는 게일의 번역작업은 서구인이 한국문화에 매우 애정이 깊은 희귀한 경우였다. 게일의 1차 번역은 영시(英詩)에 준한 것이지만 2차 번역은 시조의 특징이 반영되어 3행시를 구분하여 6행으로 번역되었고 3차 번역 시기에는 형식의 자유를 얻어 내용의 전달에 집중한 번역이었다.

헐버트(H.B. Hulbert)의 경우는 20여 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특히 영문 잡지에 관심을 갖고 저널을 창간하는 등 인쇄술을 토대로 한 문화전수에 앞장섰다. 육영공원 교사와 감리교 선교사로 두 차례 신분을 바꾸어 한국을 방문한 헐버트는 서양교육과 출판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헐버트의 시조번역이 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관심사의 차이와도 무관하지

는 않지만, 헐버트의 경우는 시조번역 외에도 ‘시론(詩論)’에 더욱 힘을 쓴 이유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러나 헐버트의 영역시조는 여전히 게일과 대비되면서 개화기 번역문학의 장(場)을 열고 있다. 헐버트는 단편적인 시 번역이 아니라 한국시의 특징을 개괄하여 영문 잡지에 소개하였으며 그가 쓴 시론 「Korean Poetry」는 외국인이 쓴 최초의 한국시 시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게일과 헐버트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시가 번역된 이래로 1930년대까지 지속된 시조번역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포섭되는 첫 단초를 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서구인의 시선에 의해 일정부분 오역되어 영역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근대초기의 번역시조는 19세기말에 출간된 영문 선교 잡지들⁴⁾을 선도하면서 조선의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거점이 되었다. 『The Korean repository』 이후 서양선교사들이 영문 잡지를 연속적으로 창간하여 시조 외에도 시론을 발표하거나 리뷰를 함께 신기도 하는 등⁵⁾ 번역문학의 관련 범주는 점차 넓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1892-1898)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기 번역시기의 게일과 헐버트가 번역한 시조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이 시기는 최초로 한국시의 번역이 시도된 점이 주목되지만 개화기의 문화적, 언어적, 심리적 갈등과 충돌의 스펙트럼을 내정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목을 요한다. 초기의 번역시조는

4) 『The Korean repository』(1892)외에도 『The Korea Bookman』(1920)등 많은 잡지들이 이 시기에 창간되었는데 주로 선교에 활용된 것들이다. 시조 외에 한국문학이 실린 잡지로는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Bookman』이 대표적이다.

5) 『The Korea Bookman』은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리뷰가 실려 있는데 윌리엄 커(William C. Kerr)는 1922년 11월에서 1925년 6월 사이에 조선에서 발행된 『개벽』, 『신천지』, 『신생활』, 『신여성』, 『영대』, 『조선문단』, 『금성』, 『조선지광』 등에 리뷰를 게재했다. 특히 『개벽』에 실린 기사들을 거의 매호마다 번역하여 논평했다. (황호덕, 「사건과 번역과 현대한국어문학, 고유한 지성의 출현과 전과 번역의 황혼-이광수, 제임스 게일, 윌리엄 커의 근대한국어판, The Korea Bookman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2집, 반교어문학회, 2016. 13-64면 참조)

한국 근대전환기 서구인의 조선 인식과 아울러, 번역문학으로서의 시조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직역과 의역의 ‘사이’: 게일의 ‘Song’으로서의 시조인식

시조는 선교사 게일(1863-1937)에 의해 처음으로 영역(英譯)되었다. 여러 연구자가 이미 규명한 것처럼⁶⁾ 게일은 19세기말에 『남훈태평가』를 입수하여 고시조를 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운몽』과 『춘향전』 등 고전번역에 관심이 많았던 게일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시조번역이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시조(시)는 분량이 긴 산문에 비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장르였음을 알 수 있다.

게일은 영문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에 원작을 밝히지 않고 번역된 시조만을 게재하였다. 게일이 선택한 시조의 원작은 영역된 시조의 내용과 게일의 행적을 좇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미진한 점이 남아 있으나 본고 역시도 『남훈태평가』⁷⁾에 수록된 시조를 원작으로 삼고자 한다.

이처럼 원전과의 대조에 어려움은 있으나 게일은 직역을 한 뒤 약간의 형식적인 의역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게일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로

6) 게일과 『남훈태평가』의 만남은 송민규의 글과 강혜정의 글에 소개되어 있으며 특히 강혜정의 글은 원전을 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민규, 「근대초기 서양인들의 한국어문학 인식 연구: 개화기 선교사들의 영역시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5, 1-282면, 참조. 강혜정,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384면 참조.)

7) 『남훈태평가』는 1863년 간행된 시조창 가집이다. 이 가집에는 단독출현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43-344면 참조)

8) 그 이유로는 게일은 ‘song’(노래)의 개념으로 시조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민규는 Song, Love song, ode로 나누어 게일의 시조번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주제별로 고찰한 때문이고 본고에서는 게일의 시조번역 특징을 ‘song’으로써의 인식으로 여긴 것이므로 관점이 다르다. (송민규, 「The Korean

고시조를 발견하고, 한국시의 특징인 고시조의 음율을 ‘노래’로써 인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행으로 매우 짧게 구성된 시조의 형식은 영시(英詩)에 익숙한 게일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을 터이므로 서구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가능한 형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3행으로 일관된 함축적인 시조 양식이 6행이상의 구체성을 띤 영시(英詩)처럼 행과 연으로 나뉘어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다. 요컨대 게일은 여러 시조를 한 편의 영시(英詩)처럼 묶어서 함께 읽고자 한 것이다. 우선, 『The Korean Repository』에 번역되어 실린 게일의 시조를 모두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제임스 게일이 『The Korean Repository』(1895.4-1896.12)에 발표한 영역시조의 분포도

	원작	번역시	발표일자	행수
1	만근쇠를	The ponderous	1895.4	6
2	사벽서리	Frosty Mom	1895.4	6
3	우뢰갓튼	Thunder	1895.4	6
4	저건너	That rock	1895.4	8
5	백구야	Ye white gull	1895.8	8
6	청산도	That mountain	1895.8	6
7	반나마	More than half	1895.8	6
8	인생이	Have we two	1895.8	6
9	군자고향	Have you seen	1895.11	8
10	이별이	Farewell's a	1896.1	4
11	내 정영	My soul I've	1896.1	6
12	사벽달	Silvery moon	1896.1	10
13	아희야	Fill the ink-	1896.1	6
14	댁들에	Here's a pedlar	1896.8	16
15	촉에서	Down in Ch'ok	1896.12	6
16	아희난	The boys have	1896.12	6

Repository에 소개된 SONG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1(1) 2013, 227-254면. 송민규,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LOVE SONG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281-309면. 송민규,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ODE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209-235면 참조)

17	간밤에	In the night	1896.12	6
18	감장새	Very small my	1896.12	6

위 표는 시조의 첫 단어를 번역하여 제목으로 삼고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게일은 총18편의 시조를 번역하여 발표하였는데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를 모두 살펴봐도 시조번역으로는 게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행수에 주목해보면 고시조가 3행인 점을 염두에 둘 때 번역된 시조는 주로 6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시에 비해 매우 짧은 시 형식을 지닌 고시조를 게일은 6행 이상으로 제시하려 한 점이 눈에 띈다.

게일은 유사한 주제끼리 서너 편을 묶어서 제목을 설정하고 주제별로 짧은 시를 여러 개 함께 소개하면서 행과 연을 구분하는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시조번역에 사용하고 있다. 게일은 시조의 압축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시의 형식에 맞추어 여러 편의 시를 연속적으로 하나의 시처럼 인식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조가 3행으로 이루어진 점, 제목이 없는 점을 임의대로 고쳐서 게일은 4행에서 10행까지 시의 분량을 의도적으로 늘여놓거나 제목도 표기하고 있다. 또한 1895년에서 1898년 사이에 게일이 번역한 시조의 특징은 이외에도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권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게일에게 시조는 영문 잡지의 표제시 혹은 권두시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에 1895년 8월호에 영역되어 실린 <Odes on Life>는 권두시는 아니지만 단독으로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게일은 이 시기의 번역시조를 그의 책 『Korean Sketches』(1898)⁹⁾에 모두 재수록하고 있을 만큼 시조번역에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면, 시조는 가창되다가 가집에 기록되었기에 가집별로 차이를 지닌다. 현재 발견되는 가집은 150여종에 이르며 게일이 번역할 당시 원전으로

9) 게일의 작품 『Korean Sketches』는 1898년에 시카고, 뉴욕, 토론토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는데, 한국을 다룬 최초의 영문 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조가 잡지가 아닌 단행본에 (재)수록된 첫 예라 할 수 있다.

삼은 가집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리처드 러트(Richards Rutt)의 연구서¹⁰⁾를 토대로 하여 1894년 이전 게일의 번역시는 현재까지는 『남훈태평가』에 수록된 시조를 원작으로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895년 4월호에 처음 영역시조를 발표하고 게일은 시조의 하단에 “Translation From a Book of National Odes, by Rev. jas. S. Gale”이라는 번역자인 자신의 이름과 함께 ‘송가집’에서 번역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1895년 5월호부터는 “Translation From korean”이라고만 적고 있다. 다음은 게일이 번역한 시조 중 한 편이다.

Ode on Filial Piety

That ponderous weighted iron bar,
I'll spin out thin, in threads so far,
To reach the sun, and fasten on,
And tie him in, before he's gone;
That parents who are growing gray,
May not get old another day.

(1895.5)

만근 쇠를 느러 느니 길게 길게 노홀 꼬와
구만장천 가는 해를 ㅁ | 우리라 슈이슈이
북당에 학발쌍친이 더디 늙게

(남훈태평가)

그 무겁고 무거운 쇠막대를
나는 지금까지 실을 꼬아
태양에 닿고, 고정하기 위해서,

10) 게일의 시조 영역본은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들이란 것을 몇 명의 학자들이 밝힌 바 있다. 리처드 러트의 글이 최초인 것인데, 여타 학자들은 이를 증명하거나 인용하고 있다. 정진석(鄭普錫), 『대한매일신보와 배설(裵說)』, 나남, 1987, 149-150면. Richards Rutt, James S.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Korea Branch in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1972참조)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묶어 두어
회색빛으로 늙은 부모들,
더 이상 늙지 않을 것이다.
(현대어)

이 작품은 1895년 4월호의 첫 면에 실린다. 만근의 쇠로 해를 붙잡아 부모님이 늙는 것을 막겠다는 효심이 드러나 있는 내용이다. 효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점을 게일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조는 제목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위 시 또한 게일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게일은 시조를 번역할 때 주제별로 유사한 것을 서너 편 묶어서 제목을 매긴다. 게일이 제목을 지어 달아놓은 것은 권두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와 함께 시조의 역할(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게일은 서구적 관점에서 시조를 번역하고 이를 한국문화의 한 양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¹¹⁾

또한 ‘효도’ 못지않게 게일이 주목한 것은 ‘애정’을 다룬 시이다. <Korean Love Song>으로 분류되는 시는 3편이며, 게일은 <Love Song>과는 차별하고 있다. <Love Song>에 해당하는 시는 4편이다. 구분해본다면, <Korean Love Song>은 사랑의 기쁨이 아니라 이별을 주로 다룬 시이며 <Love Song>은 남녀 간의 애정과 그리움을 다룬 내용을 포함한다.

Love song

Fill the ink-stone, bring the water,
To my love I'll write a letter :
Ink and paper soon will see
The one that's all the world to me,

11) 게일의 제목 사용에 대해 강혜정은 그 이유를 영어권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영시(英詩)가 제목을 사용하는 것처럼 제목을 갖춤으로서 시조는 원작인 시조의 특징을 소실하게 되고 영시(英詩)로서의 특성을 갖추게 된 셈이다. 강혜정, 앞의 논문, 50면 참조.

While the pen and I together,
Left behind, condole each other.
(1896.1)

아회야 연슈쳐라 그런 입스게 편지흐즈
거문 먹 혼쵸회는 정든 님을 보련만는
저 붓드 | 날과 갖지 그럴 줄만.

(남훈태평가)

벼루를 채워라 물을 가져오너라
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려한다
먹과 종이는 곧 볼테지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이었던 그대를,
그러나 나와 펜은 함께,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따로 남겨진다.
(현대어)

위 시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나 여전히 현재형인 이별의 아픔이 내정되어 있다. <Korean Love Song>과 <Love Song>의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뜻이 된다. 위 시에 등장하는 지필묵(紙筆墨)은 서신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붓이 없으면 사랑의 내용을 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붓은 종이와 먹물과는 달리 사랑하는 이를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먹과 종이를 부러워하는 붓의 심정이 화자의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남훈태평가』에서 애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게일이 선택한 애정시도 <Korean Love Song>과 <Love Song>을 합하면 8편에 달하므로 약 50%에 해당하는 편수이다.

The rock heaved up on yonder shore,
I'll chisel out, and cut, and score
And mark the hair, and mark the horns,
And put on Feet and all the tutns
Required for a cow.

And then my love if you go'way
I'll saddle up my bovine gray
And follow you somehow.

(1895.4)

저 건너 검어육스득허 바회 정을 드러 사다려 너여
털 삭여 빨 조차 네 밭 모와 경성드무시 거러 ㄴ는 드시 삭이리라 빨 고분
거문 암소 두었다 님 니별하면 타고 갈ㄴ.
(남훈태평가)

위 시조는 사설시조이다. 게일은 유일하게도 사설시조에는 제목을 생략하고 있다. 게일에게 시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운율이 변형된 사설시조는 비록 시일지라도 Song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설시조의 율격의 변화는 시의 위치의 변화로 구별 짓고 있다. 위 시조의 내용은 님과의 이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별한 님을 바위로 깎은 소에 태워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바위로 깎은 소”는 이별을 부정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게일은 직역과 의역의 사이에서 일정부분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초기에는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게일이 서구 중심적 시각을 지니면서도 시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영시(英詩)의 기준에 영합하되 서구인에게 한국의 시조를 널리 알리려 한 의도가 ‘직역’과 ‘의역’의 사이에서 주춤거리는 태도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게일의 초기 입장은 시조를 ‘Song’으로 인식하였기에 내용보다는 서양 시의 율격의 형식을 먼저 취사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3. 문화인식과 시론의 탄생: 헐버트의 ‘poetry’로서의 시조 인식

아무런 해명 없이 시조만 번역하여 실은 게일과 달리 헐버트는 영문 잡지

에 시론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조선어에 대한 인식과 조선 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헐버트는 시조를 ‘korean poetry’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그가 교사였던 경험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헐버트(1863-1949)는 1886년 7월 최초의 근대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처음 조선에 들어왔다가 1891년 미국으로 돌아간 후, 1893년 10월에 선교사가 되어 다시 입국하였다. 이후 헐버트는 1895년 1월에 폐간된 『The Korean Repository』를 복간하게 된다.(창간호는 1892년 1월호이다)¹²⁾ 그러나 헐버트는 육영공원의 교사로 지내던 시절부터 다수의 해외신문에 조선의 소식을 전하는 저널의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를 한국 근대저널리즘의 개척자¹³⁾로 여기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다음은 헐버트가 『The Korean Repository』에 영역한 시조의 분포도이다.

[표2] 호머 B.헐버트가 『The Korean Repository』(1896.2-1896.5)에 발표한 영역시조의 분포도

	원작	번역시	발표일자	형태
1	청산아	O Mountain blue	1896.2	3연6행
2	이달이	The willow	1896.2	8행
3	술먹지	Twas years ago	1896.2	3연6행
4	초산의	Sad heart	1896.5	5연 4행
5	십년을	Ten years	1896.5	13행

헐버트는 게일과 달리 조선어에 대한 인식과 조선어 사용에 대한 이견(異見)을 영문 잡지에 먼저 소개한다. 헐버트는 시론을 제시하며 고시조가 그대로 번역되기보다는 다양하게 의역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헐버트는 게일과는 달리 시조의 3장 6구 형식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번역자에 따라 각

12) 그러나 『The Korean Repository』는 1899년에 또다시 폐간된다. 헐버트는 이후 후속편격인 『The Korea Review』(1901)를 창간한다. 또한 헐버트는 『The Korean Repository』와 『The Korea Review』에서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1905년에 『The History of Korea』를 단행본으로 발간한다.

13) 황우선, 김성해, 「한국근대저널리즘 개척자로서 H.헐버트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1), 2017. 239-263 참조.

기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원문 시조>

청산아 무리 보자 고금사랄 네 알니라
영웅호걸들이 몇몇치 지나더나
일후에 못나니 잊거든 나도 함께.

<번역시조>

①

O mountain blue,
Be thou my oracle. Thou stumbling-Block to clouds.
Years have not marred thee nor thine eye of memory dimmed.
Past, present, Future seem to find eternal throne
Upon thy legend-haunted crest. O mountain blue.
Be thou my oracle.
오 청산이여.
그대 나의 예언자여 맹세코 구름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한 왕좌를 찾는 듯하다.
오 청산이여.
그대 나의 예언자여.

②

O mountain blue,
Deliver up thy lore. Tell me. this hour, the name
Of him, most worthy be he child, or man, or sage
Who neath thy summit, hailed tomorrow, wrestled with
Today or reached out memory's hands toward yesterday.
Deliver up thy lore.
오 청산이여.
그대 이야기를 나에게 해다오. 그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가 아이이든 어른이든 성인이든 가장 훌륭한 그의 이름을
그대의 아래에서 내일을 찬양하며
오늘과 분투하며 어제의 기억을 더듬는 그의 이름을
이야기를 전해다오.

③

O mountain blue,
Be thou my cenotaph: and when, long ages hence.
Some youth, presumptuous, shall again thy secret guess.
Thy lips unseal, among the names of them who claim
The guerdon of thy praise, I pray let mine appear.
Be thou my cenotaph.
오 청산이여.
그대 나의 기념비여. 세월이 흘러
어느 청년이 다시 그대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그대의 찬양을 받아 충분한 이름들 속에서
내 이름도 끼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 나의 기념비여.¹⁴⁾

헨버트는 시조의 각 장이 마치 “연극의 막에 대응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시조의 형식적 구조와 내용적 구조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3행으로 구성된 시조의 압축미를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한다. 압축미와 서정성 때문에 시조는 번역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역자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의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헨버트가 번역해 놓은 3편의 시조(위 인용문)는 그 가능성을 역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헨버트는 한국인이 짧은 연극을 즐기듯이 시조를 짓고 있다고 여긴다. 헨버트는 이러한 시론을 사용하여 시조의 형식과 번역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1896년 5월에 발표

14)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2월호에 발표한 헨버트의 글 「Korean Vocal Music」에서 인용한 시이다. 헨버트는 위 시조를 세 가지 방식의 번역이 가능한 점을 번역을 통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한 「Korean Poetry」에 시론과 함께 제시된 시이다.

Sad heart, sad heart, thou waitest long,
 For love's deep fountain thirsting.
 Must winter linger in my soul
 The April's buds are bursting?
 (1896.5)
 슬픈 마음이어, 슬픈 마음이어,
 사랑의 깊은 샘이 갈망하기에
 너는 오래 기다렸다.
 겨울은 내 영혼에서 꾸물거리고 있는데
 4월의 새싹은 싹이 틀 것인가?
 (현대어)

헨리 헤르트가 쓴 「Korean Poetry」는 한국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시어의 압축성, 표현의 비유, 서정의 상징성이 그것이다.¹⁵⁾ 특히 시어를 설명하는 압축성은 시어법("Diction")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른바 "Poetic diction"은 시어를 사용하는 시조의 특징을 일컫고 있다. 시조에 diction이 없거나 압축적이라는 것은 한시(漢詩)와 유사한 성향을 띤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투와 어법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시와 시조를 유사하게 본 것이다. 그러나 위 시에서 "Sad heart"(슬픈 마음), "Love's deep fountain"(사랑의 깊은 샘), "April's buds"(4월의 새싹)은 상징과 암시로 점철된 시어들이다. 위 시에는 내면에서 형상화된 '애정(사랑)'의 단면이 드러나 있다. 전체 5연 가운데 첫 연인 위 시는 원본이 『조웅전』에 수록된 시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원본인 『조웅전』의 시에서 영웅 조웅과 장소저의 사랑은 헨리 헤르트의 해석에서는 좀 더 비극적인 개인의 사랑으로 그려진다. 슬픈 감정

15) 헨리 헤르트는 한국시에 시어법(Diction)이 거의 없거나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한국시의 압축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Diction은 어법 혹은 어휘의 구사를 칭한다. 송민규, 「19세기 서양 선교사가 본 한국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면 참조.

("Sad heart")이 직접적인 한탄("The April's buds are bursting?")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헨리 헤르트의 번역은 시어가 첨가되고 의미가 확장되는 등 기본적인 시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재해석된다. 『조웅전』에서 역사적, 문학적으로 표현된 삽입시는 헨리 헤르트에 의해 개인적이고 내면화된 사랑의 시로 보다 적극적으로 변형된다.

5. 결론

게일과 헨리 헤르트는 1900년에 한국시의 특징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바 있다.¹⁶⁾ 1900년 10월에 개최된 게일의 논문발표를 헨리 헤르트가 반기를 들며 촉발된 게일과 헨리 헤르트의 한국시 논쟁은 한국문학을 둘러싸고 매우 견해가 다른 양립된 두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 연구를 토대로 게일과 헨리 헤르트의 번역관의 차이와 유사점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먼저, 게일의 시조번역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일은 직역과 의역의 사이에서 변화된 양상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만 시조를 제한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게일은 시조번역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그대로 파악하려 한 점이 있다. 특히 게일의 제1기 번역기는 수용 문학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¹⁷⁾ 그러나 서구인의 시선에서 조선은 오리엔탈리즘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게일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과 별개로) 서구인의 시선에서 게일의 시조번역은 해석되고 규정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16) 이 논쟁은 1900년에 개설된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서울지부가 10월에 개최한 학술발표회로, 게일이 발표한 「한국에 끼친 중국의 영향(The Influence of chine upon korea)」으로부터 촉발되는데 이 발표 후에 헨리 헤르트가 반박 글을 내놓는다. 헨리 헤르트의 논문 「한국의 유풍(遺風)(Korean Survivals)」은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17) 게일의 제1기 한국문학 번역의 수용 문학적 접근은 제2기에 이르면 원천 문학적 접근으로 제3기에는 중간 혼합적 접근 태도를 보인다(강혜정, 앞의 논문, 13-14면 참조)

반면에 헐버트는 게일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다. 한국시의 특징을 율격과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론을 펼치면서 한국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헐버트는 시론을 통해 한국시의 독자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한시(漢詩)와 유사한 면을 거론하였다 하더라도 서구인이 바라보는 근대시의 경험은 한국시에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헐버트는 게일과는 달리 문헌에 기록된 시조가 아니라 구전을 기초로 한 공연 현장에서 들었던 것을 참조 삼고 번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헐버트가 인용하고 있는 『조용전』의 시가 매우 다른 형식과 내용을 띠는 것은 현장의 내용이 개입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게일과 헐버트는 3행의 시조를 그 길이가 매우 길고 다양한 형태로 소개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번역시가 이러한 형태를 띤 것은 서구인의 시선에서 느낀 시조의 생경함과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특히 헐버트가 번역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원문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수용자(독자)가 원문에서 느끼는 감상(감흥)이었다. 한국인들이 시조에서 느낀 감상(감흥)을 영어권 독자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여긴 탓에 헐버트는 향유자의 입장에서 번역을 선택했다.

게일과 헐버트는 모두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으나, 한국문학이 지닌 독특함을 문학번역이라는 실제적인 과제 앞에서 서구 중심적 번역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영역 시조는 시조의 의미나 형식은 완전히 해석되지 못하고 서구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시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개화기는 한국 근대번역시의 단초가 형성된 시기이지만 한국시문학을 바라보는 게일과 헐버트의 시선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부분은 변용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한계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Westerners'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poetry(Si-Jo)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 from Gale and Hulbert's Korean traditional poetry(Si-Jo) transl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Jeon, Youngjoo
Soongsil University

The late 19th century of Korea, the time when the nation opened the ports and had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 cultures, were also time for Westerners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Westerners this time was understanding and learning Chosun's language, and the fact that first-generation translators were Western missionaries in late 19th century is related to that. Gale had affection for the Korean literature so he experienced changes in his understanding for that. Along with that, the form of his translation also altered. Gale's first translation was based on English poems, but the second translation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poetry and had different standard from English poetry.

Hulbert was special because his translation was not limited to simple poetry translation but he also expanded to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even though it was limited to ancient poetry) and introduced it along with his translations. Also, Hulbert seemed to be interested in the theory of Korean poems. As we can see from these, after 1895 when Korean traditional poetry(Si-Jo) was first translated by Western missionaries, translation of Korean traditional poetry was meaningful for that it was the first step for Korean literature to be embraced into the world literature but also had problems of mistranslation done by Western views.

Key words : The Time of Enlightenment, Translation of Korean traditional poetry(Si-Jo), Understanding of Korean Poetry, Poetry theory, J.S. Gale, H.B. Hulbert, The Korean Repository.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영인본, 『The Korean Repository』 I, The Trilingual press, 1892.
 영인본, 『The Korean Repository』 II, The Trilingual press, 1895.
 영인본, 『The Korean Repository』 III, The Trilingual press, 1896.
 영인본, 『The Korean Repository』 IV, The Trilingual press, 1897.
 영인본, 『The Korean Repository』 V, The Trilingual press, 1898.

□ 단행본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1-542면.
 국사편찬위원회, 『이방인이 본 우리』, 두산동아, 2009.1-335면.
 김승우, 『19세기 서구인들이 인식한 한국의 시와 노래』, 소명출판, 2014.1-533면.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1999, 1-343면.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출판부, 2010.1-635면.
 김홍규 외 6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2, 1-2000면.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해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1-615면.
 이상현, 『한국고전번역가의 초상 :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1-495면.
 이성일, 『번역시의 운율』, 소명출판, 2011, 1-295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혜정,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282면.
 _____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4),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29-52면.
 김성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문학 인식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번역태도」, 『우리문학연구』 39, 우리문화회, 2013. 89-116면.
 김승우,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31, 한국시가학회, 2011. 5-43면.
 박소현, 「시조교육 연구」, 『국제언어문학』 15, 국제언어문학회, 2007, 207-265면.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22, 이화여자대학교 사학연구소, 1995, 127-147면.
 송민규, 「19세기 서양선교사가 본 한국시」, 고려대 석사논문, 2008, 1-83면.

- _____,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SONG 연구」, 『비교한국학comparative Korean Studies』 21(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227-254면.
 _____,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LOVE SONG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281-309면.
 _____,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ODE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209-235면.
 _____, 「근대초기 서양인들의 한국어문학 인식 연구: 개화기 선교사들의 영역시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5, 1-282면.
 안중목, 「한국 근대신문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2), 한국언론학회, 2004, 5-27면.
 유영익, 「게일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연구』 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캐나다 연구센터, 1990, 135-142면.
 이상혁, 「근대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인식에 대하여」,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185-212면.
 이은성,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의 향유의 변화양상 : 『가요』(동양문고본)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257-280면.
 황우선, 김성배, 「한국근대저널리즘 개척자로서 H.헐버트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10),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239-263면.
 황호덕, 「사전과 번역과 현대한국어문학, 고유한 지성의 출현과 전과번역의 황혼-이광수, 제임스 게일, 윌리엄 커의 근대한국어관, The Korea Bookman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2016. 13-64면.

이 논문은 2018년 12월 6일 접수되어 12월 17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